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7월 연준 선호 인플레 지수, 안정적 수준 보여
- Bloomberg: 미 노동력, 향후 10년간 매년 0.4% 증가에 그칠 전망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국채 하락... '빅컷' 예상하는 물가둔화율 안 나와
- Bloomberg: 오늘 물가 지표로 '골디락스' 예상되자 미 주식 상승세

[미국 대선]

- WSJ: WSJ 여론 조사: 해리스 지지율은 48%, 트럼프는 47%

[미국 생활]

- WSJ: 2개 일자리 갖는 미국인들 늘어난다

[물류]

- WSJ: 미 항만 파업의 위협 그림자 드리운다

[주택]

- NYT: 금리 인하되어도 주택 구매 위기 해소 못 하는 이유는?
- Bloomberg: 미국 모기지율 2주째 하락

[에너지]

- CNNBusiness: 휘발유 가격이 빠르게 하락 중인 주는?
- Bloomberg: 원유 하락세..., OPEC+ 4분기 생산량 늘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Business: 포드, 다양성 정책 줄인다
- TechCruch: 안드로이드 G메일 사용자, Gemini와 채팅 가능
- Bloomberg: 우버, 한국 카카오에 도전장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Fed's Preferred Inflation Gauge Holds Steady in July 7월 연준 선호 인플레 지수, 안정적 수준 보여

-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 지수인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PCE)가 7월에 1년 전과 비교해 2.5% 상승해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6월에도 전년 동월 비교 2.5%였다.

-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배제한 핵심 물가지수는 7월에 연율 2.6% 상승했다.
- 이에 따라 큰 관심사는 오는 9월 연준 금리 인하 폭이 0.5%인지 0.25% 인 지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0.25%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편이다.

WSJ 기사

Bloomberg: US Workforce Is Seen Expanding Just 0.4% a Year in Coming Dec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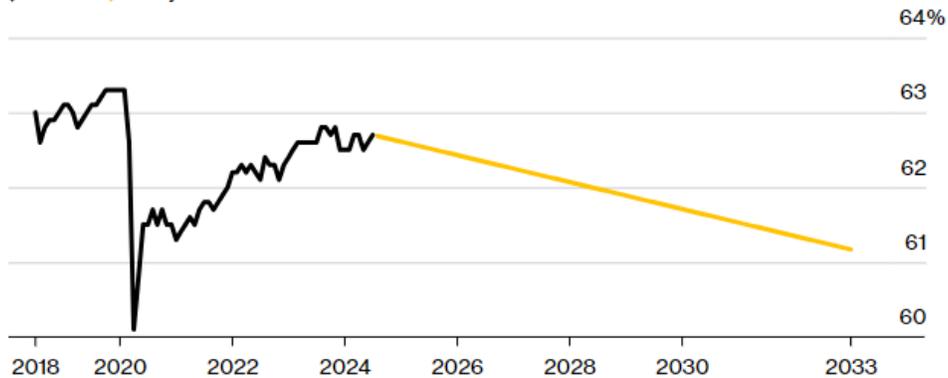
미 노동력, 향후 10년간 매년 0.4% 증가에 그칠 전망

- 미 노동시장이 향후 2033년까지 매년 0.4%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 10년간의 성장 속도의 3분의 1 아래에 그칠 전망이라고 연방 노동통계청은 오늘 금요일 발표했다.
- 숫자로 따지면 향후 10년간 6백7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것이며 매월로는 5만5천개가 늘어날 예정이다.
- 당연히 인구 성장 감소 탓이다. 이른바 교도소나 군대에 있는 이들을 제외한 인구는 향후 2033년까지 1천6백40만명이 증가할 예정인데 이는 지난 10년간과 비교해 5백만명이 줄어든 숫자이다.
-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 향후 10년간 노동 참가율도 1.4% 줄어든 61.2%를 보일 예정이다.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Share of the population likely to participate in the labor force expected to drop

／ LFPR ／ Projection



Sou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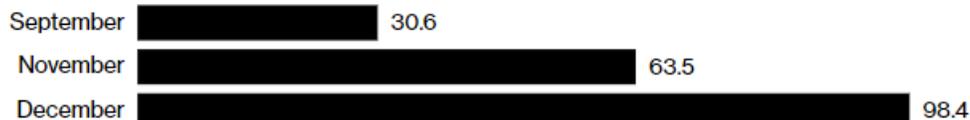
Bloomberg: Treasuries Slide as Data Fail to Support Jumbo Fed Rate Cut
미 국채 하락... '빅컷' 예상하는 물가둔화율 안 나와

- 오늘 발표된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가 다음 달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주면서 국채는 하락했다.
- 금리 스왑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을 0.5%로 보고 있다. 이는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 발표 전의 24%보다 낮았다. 올해 전체적으로 금리 스왑은 총 금리가 0.97%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September Rate Cut Solidified After Benign Inflation Data

Outlook for a 25-basis-point reduction firms after the Fed's preferred inflation gauge showed prices are moderating as expected

■ Rate-cut bets in basis points



Source: Bloomberg

Bloomberg 기사

Bloomberg: Stocks Climb as Data Bolster 'Goldilocks' Outlook

오늘 물가 지표로 '골디락스' 예상되자 미 주식 약간 상승세

- 오늘 발표된 물가지수는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연준이 올해 수 차례(a few times)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운데 미 주식 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S&P500과 나스닥은 오늘 오전 0.6%대로 상승하다 정오에 상승세가 0.2%대를 보이고 있다.
- 스왑 트레이더들은 올해 말까지 연준이 1.0%의 금리를 내릴 것으로 계속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점보 사이즈의 금리 가능성도 있지만 9월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 오늘 발표된 연준이 선호하는 핵심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 한편 골디락스는 경제가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적절한 상태를 말하는 데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안정적이고 실업률이 낮으며 인플레이가 적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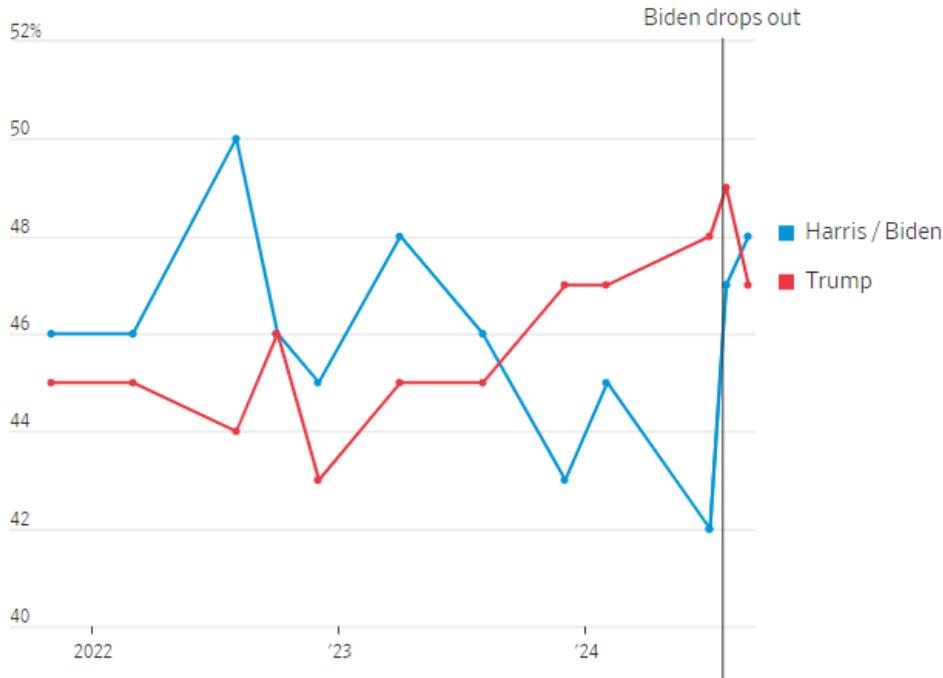
[미국 대선]

WSJ: Harris Has Taken Narrow Lead Over Trump, WSJ Poll Finds

WSJ 여론 조사: 해리스 지지율은 48%, 트럼프는 47%

-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약간 앞서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 TV로 중계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 해리스는 트럼프와의 양자 대결에서 48%로 트럼프의 47%보다 약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정당과 제3당의 포함한 투표에서는 47%대 45%로 2%포인트 앞서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앞선 수치는 2.5%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내다.

If the general election were held today, would you vote for Kamala Harris or Donald Tru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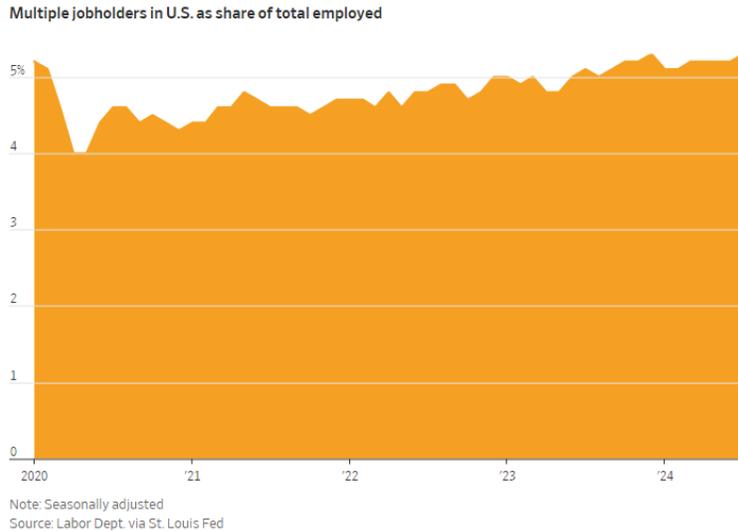
Source: Wall Street Journal survey most recently of 1,500 registered voters conducted Aug. 24-28, 2024; margin of error: +/- 2.5 pct. pts.

WSJ 기사

[미국 생활]

WSJ: For More Americans, One Job Isn't Enough 2개 일자리 갖는 미국인들 늘어난다

- 팬데믹 이후로 2개의 일자리를 갖는 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 7월에 일자리 성장이 크게 줄고 있고 실업률도 2021년 이래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다. 두 개의 일자리를 갖는 미국인 비율도 6월의 5.2%에서 7월에 5.3%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20년 4월 팬데믹 때 4%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연방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평균 비율은 4.94%였다.



WSJ 기사

[물류]

WSJ: Threat of Strike This Fall Hangs Over U.S. Ports
미 항만 파업의 위협 그림자 드리운다

- 메인주에서부터 텍사스주에 이르기까지 많은 항만의 4만5천명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조 관계자들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틀간 뉴저지주에서 임금 인상 요구와 더불어 10월 1일로 예정된 파업 준비 관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 이날은 오는 9월 30일로 끝나는 계약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노동 계약에 도달하지 않으면 파업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 노조 International Longshoremen’s Association은 메인주, 플로리다 등 동부 항만들과 텍사스 항만들을 관할하고 있는데, 회사 측 단체와 지난 수개월간 비공식적인 협상만 하고 있다.
- 노조는 77%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WSJ 기사

[주택]

NYT: Why Interest Rate Cuts Won’t Fix a Global Housing Affordability Crisis
금리 인하되어도 주택 구매 위기 해소 못 하는 이유는?

- 그동안 중앙은행들의 고금리 정책으로 융자 금리가 높아 자택 구입이 힘들었다. 집 구매 가격이 비싸고 주택업자들이 주택 건축하는 데 재정 비용

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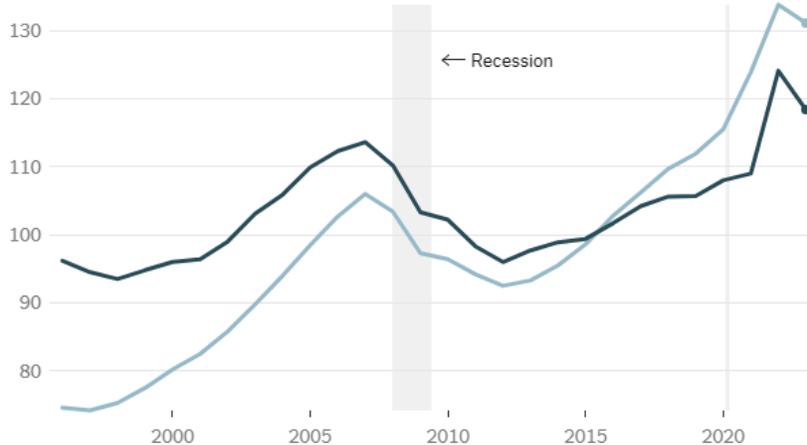
- 물론 많은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고 있다. 그렇다고 주택 구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설사 금리를 내려도 2010년대 시절의 금리 인하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30년 미 모기지율이 작년의 최고치 7.5%에서 최종적으로 5.5%나 6%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팬데믹 전의 정상적인 수준인 4%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 더욱이 장기적인 주택 시장 추세 즉, 높은 노동비, 비싼 자재비, 건축 속도와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 등으로 인해 여유 있는 주택 공급이 힘들다는 것이다.
- 지난 2009년 이래로 미국은 충분한 주택이나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

Home Prices Jump in Developed World

How inflation-adjusted home prices are shaping up across advanced economies.

O.E.C.D. house price indexes, 2015=100

House price index Price-to-income



Data reflects first quarter of each year. Sourc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y The New York Times

NYT 기사

Bloomberg: US Mortgage Rates Decline for Second Week, Slipping to 6.35%

미국 모기지율 2주째 하락

- 미국 모기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6.35%를 기록했다. 2023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 최근 대출 비용이 연준이 9월 기준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에 일부 힘입어 완화되었다. Realtor.com 수석 이코노미스트 Ralph McLaughlin은 시장이 이미 금리 인하 예상에 맞춰 가격을 책정했으므로 올해 모기지율이 더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 Redfin Corp에 따르면 7월 초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불과 몇천 달러 못 미치는 높은 가격인 상황에서 주택 구매가 힘들었다. 판매 흐름을 보여주는 기존 주택 구매 계약 건수는 7월에 전월 대비 5.5% 감소해 2001년 전미부동산업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가 데이터를 추적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Bloomberg 기사

[에너지]

CNNBusiness: Gas prices are falling fastest in these states 휘발유 가격이 빠르게 하락 중인 주는?

- 노동절 여행객들은 더 저렴한 주유소를 기대할 수 있다. GasBuddy는 노동절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3.27달러로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연휴로 예상한다. 이는 작년보다 50센트(13%) 하락했고, 2021년 평균인 갤런당 3.16달러와도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하락 폭 관련해 오리건주(97센트), 워싱턴주(93센트), 애리조나주(88센트), 알래스카주(87센트), 유타주(68센트)에 선 지난 1년 동안 유가가 특히 많이 하락했다.
- 최근 유가 하락에는 유가 약세, 휘발유 수요 약세 등 여러 요인이 있다. 미국 유가는 작년 동기 약 81달러에서 현재 배럴당 7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유가 정보국 에너지 분석 글로벌 책임자 Tom Kloza는 OPEC이 10월부터 공급을 추가한다면 전국 평균 유가가 갤런당 3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CNNBusiness 기사

Bloomberg: Oil Slumps With Focus on OPEC+ Output Plans in Fourth Quarter 원유 하락세..., OPEC+ 4분기 생산량 늘려

- OPEC+가 4분기 증산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란 보도 후 유가가 급락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배럴당 74달러로 3% 하락했다.
- 골드만삭스 그룹과 모건 스탠리가 중국 수요 약세를 이유로 최근 가격 전망을 낮추면서 글로벌 원유 벤치마크는 올해 처음 월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Mizuho Securities USA 에너지 선물 부문 이사 Robert Yawger는 “이번 하락은 유가가 시장에서 보여줄 상황을 미리 맞본 것일 뿐이다. 전 세계 석유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중국 수요 파괴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 그래도 미국 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미국 원유 재고는 1월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오클라호마주 Cushing의 원유 재고는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NBusiness: Ford becomes the latest company to scale back its diversity and inclusion policies 포드, 다양성 정책 줄인다

- 포드는 다양성과 포용성 정책을 바꾸고 있다. 포드 CEO Jim Farley는 직원들에게 작년부터 일부 정책을 변경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 이메일에 따르면 포드는 직원들의 성소수자 옹호 단체인 Human Rights Campaign의 외부 문화 설문조사 참여를 중단한다. 또한 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DEI), 게이 자긍심 행진, LGBTQ 행사 지원, 기후 변화 개선 전략, 기타 사회 정책을 수정하거나 철회했다.
- Harley-Davidson, Tractor Supply Co., John Deere 등 다른 기업들도 포드 처럼 다양성과 포용성 정책을 바꾸고 있다.

CNNBusiness 기사

TechCruch: Gmail users on Android can now chat with Gemini about their emails 안드로이드 G메일 사용자, Gemini와 채팅 가능

- 안드로이드 기기 G메일 사용자는 이제 구글의 인공지능인 Gemini와 이메일에 대해 대화할 수 있다. 구글은 Gemini 유료 사용자에게 새로운 기능인 Gmail Q&A를 출시했다. Gmail Q&A를 통해 받은 편지함 내용을 요약하거나 특정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 구글은 Gmail Q&A 기능은 현재 이메일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드라이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기능은 iOS 기기에도 제공될 예정이다.
- Gmail Q&A가 무료 Gmail 사용자에게 제공될 가능성은 적다. 구글은 Gemini의 월 구독료가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해 Gmail Q&A 같은 기능을 내세우고 있다.

TechCruch 기사

Bloomberg: Uber Plans to Step Up Fight With Larger Rival Kakao in Korea

우버, 한국 카카오에 도전장

- 우버가 한국 사업 확장을 위해 카카오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아시아 국가를 공식 방문한 CEO Dara Khosrowshahi는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카카오와 경쟁하기 위해 더 많은 택시 기사를 플랫폼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우버는 미국 기업에게 얼마 남지 않은 아시아 시장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버는 이미 중국과 동남아시아 대부분에서 철수했다. 10여 년 전 처음 한국에 진출했을 때는 규제 문제로 철수했지만, 2021년 T맵 모빌리티에 소속된 SK스퀘어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 3월에 브랜드명을 우버 택시로 변경했고, 올해 상반기엔 우버 탑승 건수가 80% 증가했다. Khosrowshahi는 “카카오가 한국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美 2분기 성장률 2.8%→3.0%로 상향...강한 소비 반영(종합) 개인소비 2.3%→2.9%로 상향...건조한 성장세 지속 '연준 선호' PCE 물가상승률 2분기 2.5%로 하향...2%대 증반으로

올해 2분기 들어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당초 집계됐던 것보다 더 강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미 상무부는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잠정치)이 3.0%(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1분기(1.4%) 대비 성장률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2.8%) 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8%)도 웃돌았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